

서울 상인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김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성찬*

요약

한국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설립된 몇몇 은행과 대기업의 사례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당연히 이 시기 기업사 연구도 부진하였다. 이 글은 그런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늦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4대에 걸쳐 서울 종로와 한강변 동막에서 상업에 종사해온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부르주아지가 일제 강점 후에 비로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일본제국을 거치며 연속적으로 성장 진화하여왔음을, 말하자면 한국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내재적 기원과 연속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종로상인, 동막객주, 수남상회, 동태원, 동일정미소, 김태희, 김수희

I. 서 언

한국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유럽, 미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 만해도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 즐비한 반면 한국에는 19세기 말에 설립된 한성은행(지금의 신한은행으로 연결), 대한천일은행(우리은행으로 연결), 박승직상점(두산그룹의 모체)과 한성전기(한국전력으로 연결), 그리고 1910년대에 설립된 경성방직(지금의 경방) 등 몇몇 은행과 대기업의 사례가 알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schong@yonsei.ac.kr

려져 있을 뿐이다(고승제, 1970; 조기준, 1973, 1977; Eckert, 1991; 김동운, 2001; 박현, 2004; 이승렬, 2007; 오진석, 2006; 주익중, 2008; 金明洙, 2010).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더욱 알려진 게 드물다. 당연히 그들이 남긴 자료를 만나기 어려웠고 그만큼 근현대 기업사 연구도 부진하였다.

본고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늦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4대에 걸쳐 상업에 종사해온 김씨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김씨가는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무반계로 살아온듯한데 늦어도 19세기 후반 어느 때인가에 김성호(1815-1873)의 네 아들 가운데 둘째 김상태(1849-1910)가 장사에 나서 지금의 서울 종로 1가에서 '수남상회'라는 포목점을 운영하였고 셋째 김상민(1851-1918)은 한강변 동막, 지금의 마포구 용강동에서 '동태원'이라는 객주업체를 경영하였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에서 MBA까지 한 김상태의 현손 김영주(1970년생)는 지금도 서울 중구 다동에서 '수남기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백수십년 이상을 상업에 종사해온 흔치 않은 집안인데 이들이 대한제국(1897-1910)과 일본제국(1910-1945)을 거치며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음미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여기서 이 시기의 여러 상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들 집안에 주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이들이 서울 종로의 시전상인과 한강변 경강상인의 전통을 이은 데다 규모도 초일류 상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명의 영세상인도 아니었던 때문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은 근대 이행기 상업발달의 두 중심이었던 종로와 동막에서 아무개 상점 또는 무슨 상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여 인근에서는 점주의 이름이나 상호만 대어도 그가 누구지를 금방 알 수 있었던 여러 상인들 가운데 하나였다. 게다가 이들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근대화, 식민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점경영을 근대화하고, 자산구성을 상품, 부동산, 유가증권, 대부금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영역을 포목점, 객주업 외에도 무역업, 정미업, 운송업, 창고업, 보험대리업 등으로 확장하고, 상점조직을 주식회사로 개편하는 등 성공한 부르주아지가 된 경우였다. 같은 시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몰락한 술한 상인, 기업가들과 달리 이들은 서울의 이름난 기업가로 성장하였고 특히 종로의 김상태 가계는 해

방 후 이승만 세력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남한체제 수립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점에서 이들은 19세기 말에 서울 종로와 한강변에 다수 존재하였던 시전상인과 경강상인의 오랜 전통을 이은 이런 級의 서울 상인들이 그 후 한국의 전형적인 부르주아지로 어떻게 성장하여 갔던가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요긴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이 집안이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였던 서울 종로와 한강변 동막에서 당대 최고의 수입상품이던 포목(1926년 이후는 주로 견직)과 최대의 수출상품이던 미곡을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내 유통시스템의 정점에 서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 후 한국의 무역상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가운데 국내의 수입, 수출업자들과 일본의 수출, 수입업자들이 대일무역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었을 때도 그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일무역의 확대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련 주체들이 어떤 형태의 협조, 경쟁, 갈등, 중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작게는 일본과 조선의, 크게는 일본제국 전체의 상업망, 유통망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또 편입되어 갔던가를 살펴볼 좋은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는 이들 중 동막의 김상민 가계가 미곡상, 미곡객주에서 정미업자, 정미자본가, 공업자본가로 진화하여 갔기 때문이다. 그간 학계는 한국 부르주아지의 농업적, 지주적 기원에 대해서는 몇몇 사례연구를 축적하였지만(김용섭, 2000; 홍성찬, 1981, 1992; Eckert, 1991) 그 상업적, 도시적 기원에 관해서는 그만한 사례연구를 내놓지 않았다. 또한 학계는 한국 자본주의의 내재적 기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벌였지만 여전히 여러 과제를 남겼다. 일제 때 경성방직이라는 대기업, 대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검토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적 기원과 단절적 성격을 강조한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의 연구도 그중의 하나다. 그의 연구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기계제 공정(machine process)'의 출현으로서 극히 제한하여 이해한 점이 특징인데 그 경우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에서조차 산업혁명으로 기계제 공장제가 정착되기 전에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또한 그는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김상민 집안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인 상인, 객주가 '기계제 공정'의 정미공장을 설립, 운영하였던 사실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정미소들이 비록 경성방직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기, 석유, 전기 발동기와 철제의 전동장치, 작업장치를 갖춘 기계제 공장들이었고 설립자도 조선후기 또는 늦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상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온 한국인 자본가들이었던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김씨가 정미업 진출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일제 강점 후에 비로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일본제국을 거치며 연속적으로 성장 진화하여왔음을, 말하자면 한국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내재적 기원과 연속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표이다.

넷째는 이들이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들이 겪은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종로의 김상태와 동막의 김상민 가계는 1920년대 초까지 둘 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늘렸지만 그 후 행로가 갈렸다. 종로의 김상태 가계는 1920년대 전반의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1926년 말부터 일본산 견직물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상으로 변신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상민 집안은 서울의 상권이 한강(선운) 중심에서 서울역(철도) 중심으로 재편되어 동막의 상권이 크게 위축된 데다 1910년대 말의 1차 세계대전 특수와 1920년대 초의 전후 불황으로 미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특히 도교의 미쓰이물산과 고베의 스키상점, 오사카의 이토추합명 등 일본의 재벌계 무역상사와 초대형 정미소들이 속속 진출하여 무한경쟁에 몰린 까닭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김씨의 사례를 통해서 조선후기와 한말 이래 성장해온 한국인 부르주아지들이 식민지기에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본고의 네 번째 의도이다.

다섯째는 이들이 첨단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상점조직과 경영방식을 근대화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유교적 생활의식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에는 문명개화사상의 확산으로 미신타파 분위기가 늘고 기독교로 개종한 상인, 기업가도 많았지만 김씨는 전통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서 장사를 배우고 사람을 사귀고 자녀를 교육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서울 상인들의 일상적 의식구조를 포함하여 한국 근대 부르주아지 성장의 문화적 궤적까지 검토할 좋은 소재라고 생각한다.

II. 서울의 상업 환경과 김씨가

서울은 조선왕조의 오랜 수도였다. 그중 종로는 서울의 정치, 경제, 행정, 군사의 중심이자 문화, 사상, 종교의 중심지였다. 19세기말 이후로는 서구의 문명개화사상이 급속하게 유입 확산된 통로로서 수구와 개화, 전통과 근대, 반일과 친일의 조류가 복잡하게 얽히며 마찰한 곳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곳에는 관리, 상인, 수공업자, 지식인, 노동자, 문화인, 종교인 등 다양한 인간군이 섞여 살았고 유동인구가 많았으며 궁궐과 정부청사 방위에 필요한 군인도 함께 살았다. 그중 군인들은 일찍부터 상업에 나섰는데 이는 무반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여기서 살펴볼 김씨가는 영광 김씨 京派 중에서도 한양파다. 서울 토박이였던 썸인데 종로 부근에서 오래 전부터 무반계로 살아온듯하다(『영광김씨 족보』; 『승정원일기』, 영조 51.5.26, 9.4). 조선후기 무반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천 명 이상의 무과합격자를 낸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가 평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정해은, 1995; 심승구, 2002; Hwang, 2004). 그래서 이들은 비록 장남(중손)은 봉제사 접빈객에 치중하며 관직 진출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지라도 차남 이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업, 특히 장사에 나선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최대의 상업도시였던 서울은 더욱 그러하여 그중에는 몇 대에 걸쳐 무반 또는 중인 계통의 하급 관료나 상인 사이를 왕래한 집안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김씨가도 그랬다. 이들의 현존하는 자료 중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1893년의 동태원 『일기』와 1899년의 수남상회 『일기』다. 그런데 일제 초에 황해도 신천군수를 지냈던 장휴가 1937년에 김상태의 장남 김태희(1887-1947)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두 집안은 원래 '仕宦家'였으나 장휴의 아버지와 김상태(1849-1910)가 白木塵에 함께 들어가 '다년'간 종사하다가 장휴의 아버지는 그 후 '官界'로 돌아갔으나 김상태는 그대로 눌러앉아 김태희까지 2대에 걸쳐 종로에서 포목상을 해왔다. 이 둘은 서울의 '사환가' 출신으로서 종로 백목전의 상인이 되었고 그중 하나는 다시 '官界'로 돌아가는 등 두 영역을 자유롭게 왕래한 것이다. 당시는 10대 후반이면 어엿한 장사꾼이었으니 김상태 역시 1860년대 후반 경부터 종로에서 포목장사에 나선 듯하고 두 살 아래 동생 김상민도 비슷한 시기에 동막에서 객주업에 종사한

것 같다(홍성찬, 2006).

19세기말, 20세기 초 서울의 상업계는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 자본과 상업 기술, 상업 인프라에서 크게 앞선 외국 상인들이 대거 진출하여 상권을 잠식하자 정부는 상업 진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적으로도 신분, 권력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돈으로 투표하여 자원을 배분받는 사회를 만들자는(Money talks) 자본주의 경제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홍성찬, 2001). 그리하여 서울의 名家, 文翰家, 儒家의 후예는 물론이고 전현직 고관들조차 상업에 투신하는 일이 많았다(竹內錄之助, 1915; 조기준, 1973; 고승제, 1975). 당시 언론에서 紳士, 紳商 등으로 부른 사람들이었다(마민 2006). 그런데 이들의 상업 진출에는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재정이 허약하고 민간자본을 동원할 은행, 증권시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거나, 다수의 민간이 자본을 모으거나, 동족이 합자하여 동족기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류승렬, 1996; 전우용, 2011; 김용섭, 2000). 김씨가는 그중 마지막 경우였다.

Ⅲ. 상업경영, 지주경영, 일상생활

1. 상업경영

종로 포목상에서 무역업자로 : 20세기 초 김상태의 수남상회는 종로 1가 64번지의 목조 2층 기와건물에서 국내외의 각종 포목, 주단, 紉苧, 모직 등을 매매하였다. 여기에는 김상태와 그의 4형제 가운데 동막의 김상민을 뺀 첫째 김상열(1847-1906)과 넷째 김상학(1854-1903)도 함께 출자 중이었는데 이들 모두 출자비율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가계비를 충당하였다. 근대기업의 주요 특징가운데 하나인 가계와 기업의 분리를 엄격히 실행한 것이다(홍성찬, 2002). 수남상회의 경영권은 김상태와 그의 아들 김태희가 가졌다. 실무는 1899-1903년에는 김상학이, 1903년 김상학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 김재희가 맡았고, 1908년 2월 김재희가 24세로 사망한 후에는 22세의 김태희가 맡았다.

김태희는 1910년 3월 부친 김상태가 부세대 3형제 중 마지막으로 사망하자 그간의 부세대 3형제 동업을 자세대 사촌 4인의 동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서 1911년 2월에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채권 등 상점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사촌들 사이의 지분을 확정하였는데 자본금 총액은 3만 7,661원(적립금 1,500원)이었다. 출자지분은 김상열의 장남 김중희 16.3%, 차남 김진희 19.2%(합계 35.5%), 김상태의 장남 김태희 39.4%, 김상학의 장남 김재희 19.9%, 공용(公用, 제사 등 대비한 공동지분) 5.1%였고 이들 지분에 대해서는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12 회계연도까지도 근대기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자본금 확정, 자본금 불변의 원칙(宮本又郎, 1990)을 지키지 않았다. 출자자들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그 경우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당금만 축소시켰을 뿐이다. 출자자들이 회계연도 말 이전에 '配當預撥金' 이상의 금액을 가져간 경우도 그만큼의 출자금을 축소시켰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김태희는 1913년에 사촌들과 동업을 청산하고 수남상회를 자신의 개인기업으로 만들었다. 사촌들에게 출자금을 돌려주고 상점을 자신의 단독출자, 단독경영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1912 회계연도 말에 3만 6,726원이던 자본금은 1913년 말에 1만 8,493원으로 줄었다. 세대교체에 따른 결속력 약화와 일제 강점후의 새로운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태희는 수남상회를 자신의 개인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에 대한 배당금을 종래의 연 12%에서 연 9.8%로 축소하였다. 개인기업으로의 전환이 자본축적에 유리했던 것이다. 수남상회는 이때부터 자본금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1913 회계연도 말부터 1918년도 말까지 자본금에 변화가 없었고 1919년 초에 자본금을 2만 4,311원으로 늘린 후에도 1920년대 말까지 변화가 없었다. 일기, 보조장부, 원장 등의 장부와 영업개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도 1913년부터 새로 작성하였다. 수남상회는 1935년 8월에 주식회사로 개편할 때까지 비록 외관은 아무개상점에 불과하였지만 내면은 서양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가계와 기업을 분리하고 자본금을 확정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산하는 등 이미 근대기업의 특징을 두루 갖추었다(홍성찬, 2002).

1910년대의 수남상회는 국내외에서 포목, 주단, 紉紉, 洋屬을 매입하여

팔았다. 창신사, 공익사, 광흥태, 개성사지점 같은 한국인 상점과 개인들, 취성호, 금성동 같은 국내 중국인 상점들, 그리고 和田상점, 安盛상점 같은 일본인 상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서울은 물론 전국의 거래처와 중국 안동현(단동) 등지에도 공급하였는데 주거래 품목은 면직(34.5%)과 견직(31.3%)이었다.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1914년 2만 2천원, 1917년 5만 5천원, 1919년 10만 2천원 대로 늘었고, 매입액도 1914년 1만 8천원, 1917년 5만 6천원, 1919년 9만 7천원 대로 늘었다. 그러나 만성불황기였던 1920년대에는 거래규모가 줄었다. 매출액은 1920년 8만원, 1923년 5만원 1926년 4만 9천원 대로 감소하였고, 매입액도 1920년 6만 7천원, 1923년 4만 7천원, 1926년 4만 5천원 대로 줄었다. 영업세도 1923년 143원, 1926년 92원으로 떨어졌다. 위기였다. 수남상회는 이 위기를 무역업 진출로써 타개하였다. 1926년 말부터 일본에서 일본산 견직물(인견 포함)을 직수입하여 도매상과 중매인 조직을 통해 전국에 팔았다. 이로써 매입액은 1926년 4만 5천원, 1927년 11만 7천원, 1928년 14만 7천원, 1929년 18만 9천원 대로 늘었고, 매출액도 1926년 4만 9천원, 1927년 11만 4천원, 1928년 15만 4천원, 1929년 19만 7천원 대로 늘었다(홍성찬, 2002).

일본산 견직물 수입의 확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랐다. 당시 한국에 견직물을 판매했던 일본의 주요 산지는 동경부근 군마(群馬)현의 기류(桐生)시, 이세사키(伊勢崎)시, 도치키(栃木)현의 아시카가(足利)시, 야마나시(山梨)현의 미나미쓰루(南都留)군, 기타쓰루(北都留)군과 호쿠리쿠(北陸)지방 이시카와(石川)현의 가나자와(金澤)시, 노미(能美)군, 고마쓰(小松)시, 후쿠이(福井)현의 후쿠이(福井)시, 요시다(吉田)군 등이었다. 이곳에 다수의 생산자가 밀집하여 경쟁적으로 생산하였는데, 이들 제품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입된 것은 1924년 7월 31일 일본정부가 견직물 등 사치품에 대하여 고율인 종가 10할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때부터였다. 이로써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외국산 견직물이 경쟁력을 잃어 그 전까지 한국시장을 석권했던 중국산 대신 일본산 견직물이 대거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견직물 무역업계는 아연 활기를 띠었다. 한국의 수입상들은 일본의 견직물 산지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통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일본의 수출상들은 한국시장을 조사하고 대리점, 직영점, 전시회 개설 등 판매조직을

정비하였다(홍성찬, 2009).

한국과 일본의 견직물 교역확대에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다. 일본 각지의 수출상들은 일본 내 다른 산지의 수출상들과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한국으로 수출할 견직물의 품질관리(표준화, 품질검사)와 매매계약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래서 명치시기 이래 주요 산지마다 조직되어 있던 동업조합들을 모체로 그 산하에 ‘桐生朝鮮織物移出會’, ‘石川縣小松朝鮮織物同盟會’, ‘金澤移出織物會’ 같은 조직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물론이고 교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계약위반, 과당경쟁, 여타 분쟁사항들을 규율 중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현지 관청들도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의 수입상들도 마찬가지였다. ‘朝鮮絹布商組合’, ‘京城絹布商同盟會’, ‘絹友會’ 같은 단체를 만들어 일본의 수출상들에게 엄격한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또 수입상간에 생길 수 있는 과다경쟁이나 여타 분쟁의 조정에도 나섰다.

한국의 수입상과 일본의 수출상들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총독부에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밀수 방지와 일본제품에 대한 이입세, 소비세 철폐 등을 촉구하고, 한국의 수입상들로부터 소비자 반응을 신속히 피드백 받아 제품개선에 힘쓰며, 수출상품의 선적과 대금지불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매매계약 준수를 촉구하며, 계약위반 시의 분쟁조정과 중재방안 등을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수입상과 수출상들은 양쪽의 수입상조합과 수출상조합들을 묶어 상위의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1929년에 한국과 일본의 견직물 무역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든 ‘조선직물조합연합회’가 그것이었다. 김태희는 견직물 무역업계가 이렇게 돌아간 1929년 2월에 서울의 주요 한국인 수입상들과 함께 ‘경성견포상동맹회’를 만들어 스스로 회장이 되었고 그 회장 자격으로 조선직물조합연합회에 참여하여 일본 수출상들과 정보교환, 기술협력, 자료조사, 인적교류, 분쟁중재 등에 앞장섰다. 강점 후 한국의 무역파트너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빠르게 교체되는 가운데 일본을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 유통네트워크, 일본제국의 유통네트워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깊숙이 편입되어간 것이다(홍성찬, 2009).

수남상회는 견직물 무역으로 자금수요가 늘자 1929년에 2만 4,310원이던 납입자본금을 늦어도 1933년 말까지 5만원으로 늘렸다. 점포도 종로 1

가 64번지에서 55번지로 확장 이전하였고 1935년 8월에는 상점조직을 자본금 50만원(납입자본 12만 5천원, 총주식 1만주)의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1935년에는 경성견포상동맹회 회원이던 신태화의 태성상점(3월 1일), 허택의 광택상회(4월 10일), 조선용의 광창상회(6월 1일)도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개인소득세 제도를 바꾸어 개인상점의 경우 종래 영업소득에만 과세하던 방침을 바꾸어 1934년부터 영업소득에 지대소득(제3종소득)을 합하여 누진종합 과세하자 차제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게 세제상은 물론 장차 자본금 조달에도 유리하여 그랬던 것 같다. 생각하건대, 당시 태성상점 등도 비록 외관은 아무개상점에 불과하였지만 실제로는 수남상회가 그러했듯이 주식회사로 개편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서양부기를 도입하고, 가계와 기업을 분리하고, 자본금을 확정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산하는 등 근대기업의 특징을 두루 갖추었을 것이다.

1937년 현재 수남상회의 중역은 사장 김태희, 상무 김명희(김태희의 동생), 취체역 주정균, 감사역 김진희(김태희의 사촌), 김규병(김태희의 당질. 김재희 아들) 등이고 대주주는 김태희와 그의 동생 김명희(각각 3,000주 소유), 김태희의 아들 김규용과 당질 김규병(각각 1,000주 소유) 등 16명이었다. 김태희가 주식회사로 개편하면서 사촌 김진희, 당질 김규병과 기타 주정균 등을 주주로 영입하였는데 영업성적은 개편 후에도 계속 좋았다. 1930년 144원, 1931년 106원이던 영업세액은 1935년 496원, 1939년 766원으로 늘었고 배당률도 1935년 하반기 이후 1938년 하반기까지 매기 10%를 유지하였다(홍성찬, 2002).

1910년대의 수남상회는 수입상, 중매인 등을 통해서 매입한 국내외의 각종 포목, 주단, 紉苧, 모직을 종로 점포로 찾아온 고객이나 지방거래처에 팔았다. 지방거래처와의 상담은 출장 중인 대리인, 중개인이나 전보, 엽서, 편지를 활용하였다. 1914년 이후는 전화도 사용하였다. 대금결제도 대리인, 중개인을 보내 수금하거나, 우편환과 우편대체저금 등 우체국의 송금제도를 이용하였다. 주문받은 상품을 소포나 화물운송(철도) 편으로 보낸 후 우체국을 통해서 대금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의 상점들과 지방 거래처들 사이의 일반적인 대금결제 방식이었다. 그래서 경성우편국에서는 1912년에 우편소포실을 증축하고 대체저금 이용법을 홍보하였다. 김태희도 1914년 현재 광화문 우편국에 우편대체저금(경성 448번)을 개설 중이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우편통신 산업의 발전은 상업발달의 중요 수단이고, 상인 기업가는 전신, 우편, 전화의 주요 소비자였던 점에서 우편통신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었다(홍성찬, 2006).

점포는 거의 연중무휴로 열었다. 이는 종로상인 대부분이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점원의 일요일 휴식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될 정도였다. 점원은 보통한문이나 간단한 부기, 산술을 익힌 후 사환으로 들어와 잡역을 맡다가, 서기로 승진하여 記帳과 계산업무를 맡았고, 그 후 差人이 되면 점포의 업무를 통괄하거나 지점, 분점을 맡아 운영하였다(이승렬, 2007). 수남상회도 그랬다. 1910, 20년대 초에 이곳 점원은 2명 내지 4명 정도였는데 초임에게는 수습임을 감안하여 많은 봉급을 주지 않았지만 경력이 쌓이면 직무와 봉급을 상향조정하였다. 연말에 보너스를 주고 경조사를 보조하고 숙식과 옷을 제공하였다. 1910년대 초 이들의 장부체계 개편에는 관립외국어 학교에서 서양부기를 배운 장조카 김규찬이 크게 기여한듯한데 1914년 9월경 그가 그만 둔 후에도 이들은 일기, 보조장부, 원장을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이곳 점원들 역시 간단한 재래식 부기를 익힌 후 사환, 서기로 들어와 서양부기를 익혔거나 학교에서 정식으로 부기를 배운 후 입점한 것 같다.

수남상회는 1926년 말에 무역업에 진출하고 1935년에는 주식회사로 조직을 개편한 까닭에 무역실무, 기업회계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상업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취체역 주정균과 기타 김신배 등 여러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주정균은 보성전문학교 졸업 후 초창기 경제학 교과서인 『최신경제학』(1908)을 공저하고 보성전문학교에서 강의까지 한 인사였다. 김신배는 경기공립상업학교 출신이었다. 그런데 김태희는 그날그날의 결산만을 자신이 직접 챙겼다. 직원들은 매일 밤 10시경 그의 집으로 장부와 현금을 들고 가 최종결재를 받은 후 일과를 마쳤다. 김태희는 근대교육을 받지 않았고 일본어도 못했지만 자신의 감독아래 상업학교졸업자, 전문학교 교수 출신까지 영입하여 경영근대화를 꾀하였다(홍성찬, 2006).

이들은 신문 잡지 등 인쇄자본주의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였다. 거기서 상업지식, 경제정보를 얻고 광고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이는 동막의 김상민家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규모의 광고에는 그만한 매체가 없다고 생각하였

던 것이다. 전국적인 신문잡지의 보급, 인쇄자본주의 발전은 상업발달을 촉진한 수단이고 상업발달은 상인, 자본가들이 신문잡지의 주요 구독자이자 광고주란 점에서 인쇄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동막 객주에서 정미자본가로 : 종로에서 수남상회를 운영한 김상태의 동생 김상민과 김상민의 아들 김수희(1880-1940), 김탁희(1883-)는 늦어도 19세기 말부터 한강변 동막, 지금의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동태원’이라는 객주업체를 운영하였다. 당시 미곡은 한국최고의 내수상품이자 수출 상품이고 서울은 전국최대의 미곡소비 시장이었다. 그래서 경기, 황해도는 물론이고 충청, 전라도에서 생산한 미곡까지 서울로 올라왔는데 운송루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강을 따라서 배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포구가 밀집한 한강변의 서강, 동막, 마포, 용산 등지에는 미곡상품을 보관, 위탁판매하거나 그걸 담보로 賣買 양쪽의 고객이나 제3자에게 금전대부를 해준 다수의 상인이 있었다. 한강변의 객주, 여각들로서 이들은 철도개통으로 서울역이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떠오른 후에도 한동안 활발히 영업하였다. 동태원은 그런 미곡객주의 하나였다.

동태원의 주업은 동막과 서해 해운이나 한강 수운 또는 육로로 연결된 곳에 농지를 가지고 있던 서울 또는 현지의 지주나 그곳을 출입하며 장사한 상인들로부터 미곡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것들을 팔아주고 그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를 받는 일이었다(홍성찬, 2009, 2012). 그 과정에서 고객(荷主)을 대신하여 운임, 창고료, 노임을 선납해주거나 賣買 양쪽 고객에게 자금을 대부해 준 후 이자수입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객주업은 기본적으로 중개업이라서 자본금보다 상업지식, 정보, 신용, 명망과 그것들을 묶어줄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야였다. 미곡객주도 그랬다. 이들은 거래를 위탁받아 미곡을 운송, 저장,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곡의 생산, 유통에 참여한 지주, 운송업자, 창고업자, 정미업자, 금융업자, 보험업자들과 수시로 거래하였고 자연스럽게 이들 인접분야로의 진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른바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전략으로서 차제에 그런 분야로 진출하여 그들과의 거래를 내부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는 다각화를 추진한 것이다(Coase, 1988; 홍성찬, 2007a, 2013).

김상민 가게가 그랬다. 우선 장남인 김수희는 1908년 현재 황해도 연안, 충남 면천 등지에 적어도 논 300두락, 밭 5일경 이상을 소유한 지주로서 직접 미곡을 생산하였다. 1910년대에는 곡물 외에 어염까지 취급한 객주로서 氷船業, 철도화물취급업 같은 운송업과 보험업(有隣생명보험과 일본생명보험 대리점)에도 나섰고 1910년 11월에는 동막에서 건평 62평의 공장에 10마력짜리 석유엔진과 인접기(粃摺機, shelling), 마찰식 정백기(whitening)를 설치한 동일정미소를 설립하여 정미업에도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의 경우 기술자 1명과 직공 3명, 인부 14명 등 도합 17, 18명가량이 연간 135일 정도를 작업하여 精米 5,400석 정도를 생산하고 연간 8만 7,750원의 매상을 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1919년에는 30마력가량의 전기발동기를 사용하였는데 제현기(shelling)는 기계공구류 수입상인 일본인 시라카미(白神專一)가 운영한 인천 시라카미(白神)양행의 경성지점에서 구입하였고, 정백기(whitening)는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에 본사를 둔 엔겔사(Engelberg Huller Co.)의 동양 총대리점이던 동경 소가(曾我)상점 경성출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홍성찬, 2013). 김수희는 1919년 10월에 동막의 실업가들과 함께 위탁매매업, 보관업, 창고금융업을 수행할 자본금 20만원의 동진창고 설립에도 나섰고, 1920년 2월에는 경성부 의주통에서 곡물무역과 위탁매매, 정미 및 부대 업무를 담당할 자본금 12만원의 조선곡물사 창립에도 나섰다.

차남 김락희(1883년생)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는 18세 때인 1900년에 서울의 객주들이 광신교역회사라는 객주조합을 만들자 출자사원이 되었고, 1905년에는 정부가 화폐공황 대책으로 창고 및 금융업 겸영의 한성공동창고회사를 설립하자 주주가 되었다(이승렬, 2007; 윤석범 외, 2005). 1906년에는 동막에서 당대 일급 기업가였던 백완혁(조합장), 우항정, 민치장, 백인기, 윤정석, 조창한과 함께 미곡객주업체인 창희조합을 설립하여 총무 겸 지배인으로 일했고 1907년에는 이를 서서동막합자상회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홍성찬, 2007a). 김락희 역시 동막에서 자본금 1만원, 건평 40평, 원동기 15마력의 태을정미소를 설립하였는데 1915년 현재 종업원 20명이 精米 6천석 가량을 생산하여 6만 원정도의 매상을 올렸다.

미곡은 한국최대의 내수상품이자 수출상품이었다. 주로 일본 오사카, 고베, 나고야 등지로 수출했는데 출하지는 인천, 부산, 목포, 군산, 진남포,

신의주 등 주요 미곡산지 부근의 항구도시들이고, 수출상은 미쓰이물산, 이토추합명, 스즈키상점 같은 일본 재벌계 무역상사로부터 일찍이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 대지주와 대형 미곡상, 정미업자들, 그리고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한국인 미곡상과 정미업자까지 다양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수입업자들과 연계하여 일본 시장을 조사하고 대리점, 직영점 같은 판매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수출미곡의 품질관리(표준화, 품질 및 등급검사)와 매매계약 이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수출지의 명성과 신용이 떨어져 경쟁 지역의 다른 수출상들에게 시장을 빼앗길게 뻔했다. 그래서 이들은 수출지마다 ‘인천곡물협회’, ‘진남포수출곡물상조합’, ‘경성미곡상조합’ 같은 수출상조합을 만들어 수출미곡에 대한 품질검사와 교역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계약위반, 과당경쟁, 분쟁사항들을 규율하고 정부, 금융기관, 철도 해운회사 등에 각종 건의와 로비를 하였으며 각지에 ‘仁川米豆取引所’ 같은 일종의 거래소(Grain Exchange)에 해당하는 미곡거래시장도 설립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각지의 수출상조합들을 망라한 전국조직으로서 ‘조선곡물무역상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1917년 3월 제1회 인천대회와 그해 9월 제2회 경성대회를 시작으로 1918년 대구, 1919년 부산, 1920년 군산, 1921년 대구, 1922년 경성 등 매년 각지를 돌며 ‘全鮮곡물무역상대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수출상들의 결속과 규율을 다지고 정부와 금융기관, 철도 및 해운회사, 언론 등에 다양한 건의를 했는데 총독부와 현지 관청들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1923년 12월에 조선총독부,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와 미곡생산자 삼자가 협력하여 일본 동경에 ‘동경선미(鮮米)협회’를 설립한 것도 그중 한 예였다.

일본 오사카, 고베, 나고야 등지의 곡물 수입상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국의 미곡산지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일본의 유통조직을 정비하였다(『경성일보』, 1914.2.19). 그리고 ‘大阪조선무역상동업조합’, ‘대판무역상조합移入部동맹회’, ‘兵庫港조선미곡상조합’ 같은 수입상조합들을 만들어 한국의 수출상에게 엄격한 품질검사와 매매계약 이행을 추구하고 수입상들 간의 과다 경쟁이나 분쟁도 조정하였다. 일본시장에서 일본 쌀, 대만 쌀과 경쟁한 한국 쌀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섰다.¹⁾

1) 대판상업회의소 산하에 대판미곡상조합이 있고 그 아래에 한국 쌀을 수입 판매한 대판조선무역상조합이 있었는데 전자의 대판미곡상조합은 그곳 거래소에서 한국 쌀을

한국의 곡물 수출상과 일본의 수입상들은 피차의 공통 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출세, 이입세 부과 등 한국 쌀의 이출을 어렵게 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관 및 하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도 및 해운회사에 노선증편과 운임인하를 요청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을 피드백 받아 품질개선에 힘쓰며, 조선은행이나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금융기관에 자금유통을 로비하고, 그 외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일 등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열린 '전선곡물무역상대회'에는 일본에서 무역업자들이 참가하였고, 1915년 오사카(8회), 1918년 도쿄, 1919년 마쓰야마(松山), 1922년 경성, 1923년 도쿄, 1926년 타이페이(臺北) 등지에서 열린 '대일본미곡대회'에는 한국에서 곡물무역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동관심사를 논의하였다.²⁾

한국과 일본의 미곡무역업계가 이렇게 돌아간 가운데 서울의 수출상들은 경성미곡상조합을 만들었다. 1918년에는 그걸 모체로 京城正米取引市場을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재벌계 무역회사인 미쓰이물산의 경성지점장 노무라 가이이치(野村嘉一, 조합장), 이토추합명의 자회사인 서울 공익사 대표 타케나카 다케기치(竹中多計吉), 스키상점의 경성지점장 고야마 쇼조(小山庄三)와 텐니치 쓰네지로(天日常次郎, 天日정미소), 시교 쇼조(執行庄三, 용산정미소), 마쓰이 사부로(待井三郎, 待井정미소), 이마무라 이사부로(今村伊三郎, 今村정미소), 나카지마 다케지로(中島竹次郎, 中島洋行), 가지하라 스에타로(梶原末太郎, 梶原상점), 그리고 조병학(한성정미소), 송택수(삼광정미소), 최만섭(화천정미소), 이종묵(한강정미소), 오택선 같은 서울의 일본인, 한국인 미곡상과 정미업자들이 설립위원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동막에서 동태원, 동일정비소를 경영한 김수희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현재 서울 공익사 대표 다카이 헤이자부로(高井兵三郎)와 함께 이 조합의 부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홍성찬, 2007). 일본제국의 곡물

'定期受渡代用米'로 계속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후자의 대판조선무역상조합이 '대용제 존속'을 강력히 지지한 것이 그런 예다.

2) 1917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전선곡물대회에 오사카, 고베, 나고야의 무역업자, 운송업자가 대거 참가하여 곡물 수이출과 포장, 운반상의 주의사항, 운임협정, 船腹공급 문제 등을 토의한 것(『매일신보』, 1917.8.29), 1921년 제5회 대구 대회에 大阪鮮滿무역동업조합, 神戸미곡비료시장, 廻米問屋조합, 岡山곡물주식회사, 尾道鮮滿미곡비료수출조합, 熊本미곡거래소와 東京米타임스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것이 그 예다(『동아일보』, 1921.11.14).

유통네트워크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또 깊숙이 편입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하 서울 한강변 동막, 마포, 서강 등지의 미곡상인과 객주자본가들의 미래는 밝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철도와 신작로 개통으로 서울의 물류 중심이 한강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서울역 주변의 남대문, 서대문 일대가 부상하고 동막 일대가 위축된 점이다. 1924년 한일은행 동막지점과 동막시장의 폐지, 1925년 한성은행 동막출장소의 폐쇄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재벌계 무역상사 등 거대자본이 밀려와 그들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곡물은 견직물 시장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규모가 컸다. 그리고 미곡시장의 불안은 일본의 쌀소동(1918)에서 보듯이 자칫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사안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재벌계 무역상사와 대형 곡물상, 정미자본가들은 조선, 대만, 만주 등 일본제국 전역에 진출하여 곡물을 거래하였고 일본정부도 이들을 지원하였다. 곡가가 크게 올랐던 1910년대 말에 도쿄의 미쓰이물산이 자신의 ‘專屬買辦’이던 서울의 李章魯상점을 통해서, 오사카의 이토추합명이 자회사인 서울 공익사를 통해서, 고베의 스즈키상점이 대리인인 서울 용산 삼각정의 고니시 타쓰지로(小西辰次郎)를 통해서 각지의 곡물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일본정부가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이를 적극 지원한 것이 그 예였다(홍성찬, 2013). 이런 이유로 한국인 미곡상, 정미업자들은 자금, 조직, 정보, 국가지원에서 모두 밀리며 이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김수희도 1920년대 전반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채 조락하여 갔다.

2. 지주경영

한말 일제하에는 지주로 출발하여 지주 겸 상공업자로 변신한 자산가가 많았다. 동시에 상공업자로 시작하여 대지주가 된 예도 많았다. 김씨가가 그런 경우로서 그중 김상태 가계는 1904, 190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불과 5, 6년 후인 1910년에는 서울, 경기, 황해, 충청, 전라도에 30정보 이상의 농지를 가진 대지주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인근의 농지를 한 필지 한 필지씩 사 모은 게 아니라 각지에서 비교적 덩치가 큰 농지매물들을 일괄하여 사들인 점이 특징이었다. 당시 이들은 종로의 이름난 상인으로서 전국에 영업망, 정보망을 가졌고 서해와 한강의 운송망, 물

류체계에 정통하였으며 자금력도 좋았다. 게다가 미곡객주였던 동생 김상민과 조카 김수희, 김락회를 통해서 농지시장과 미곡시장 동향에도 밝아 종로에 앉아서도 경기, 황해는 물론 충청, 전라의 농지까지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농지매입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였다. 주지하듯이 1904년과 1905년 상반기는 전에 없던 백동화 인플레이션으로 백동화 가치가 급락한 때였다. 일본화폐 1円당 25냥(法定)이던 백동화 환율은 1902년 1월 38냥, 1904년 11월 50냥, 1905년 4월 60냥 등으로 폭등하였고 이에 자산가들은 인플레이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산구성을 백동화가 아닌 부동산이나 기타 상품 위주로 전환하였다(홍성찬, 2003). 수남상회가 부동산 특히 농지를 적극 매입한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는 다른 상인, 자산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05년 7월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다가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여 구백동화를 회수하고 신백동화를 발행하자 서울 재계는 극도의 전황, 화폐공황에 빠지며 혼란을 겪었다. 유동성 부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폭등하여 대상인조차 파산하였으며 어음은 연쇄부도를 맞았다(윤석범 외, 2005). 거래 은행들도 부실에 빠져 영업을 정지하거나 정부에 구제자금을 요청하였다. 당시 서울은 대표적인 백동화 유통지역으로서 화폐정리사업에 따른 전황, 즉 유동성 부족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1905년에는 외환제도까지 폐지되어 상인들이 더 이상 조세자금을 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07년에는 근대해산과 의병전쟁으로 경기가 더욱 위축되었다. 이에 백동화 인플레이션 하에서 현금대신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자산가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지매물을 헐값에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때마침 부채가 적고 일본 엔 등 외환을 다량 보유하였거나 일본의 은행들에서 계속 대출을 받아 유동성이 풍족하였던 사람들은 엄청난 호기를 맞았다(一記者, 1930). 이들은 경쟁업체의 도산으로 업세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주들의 농지를 싸게 사들이거나 그걸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대부금 미상환을 이유로 전당권을 행사하여 일거에 대지주가 될 수 있었다.

수남상회가 그런 경우로서 이미 이들은 1910년대 초에 경기도 이천, 인천, 부평, 양평과 충청남도 목천, 면천, 황해도 연백, 충청북도 등지에 무려 80정보의 농지를 가졌다. 매입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매매차익 확보였

다. 1905년에 전북 익산의 논 155두락을 구입했다가 얼마 후 다시 판 것, 1909년에 충남 예산, 신창, 아산의 농지를 매입했다가 1년 남짓 후 매각한 것이 그런 예다. 다른 하나는 지대수입 확보였다. 이들은 소작료로 받은 미곡을 대개 배편으로 옮겨 팔았는데 충남 아산, 면천 등 서해안 지역의 농지를 집중 매입한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렇게 보면 이 시기 서울 상인들은 유동성 부족이나 불황이 심한 시기에 농지를 구입하였고 그렇게 매입한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그때그때 팔아 매매차익을 얻거나 그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였다. 소작미곡을 매각할 때도 전라도 미곡조차 서울, 인천까지 옮겨 팔았을 만큼 매각 시기와 장소를 세심하게 고려하였다(홍성찬, 2003, 2012).

김태희는 1913년에 사촌들과 동업을 정리하고 상점을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차제에 상점소유 농지들을 사촌들 몫으로 돌린 것 같다. 그래서 1914년에는 16정보의 농지만 소유했는데 그 후 다시 농지를 구입하여 충청남도 면천, 당진, 천안, 연기와 경성부 독도, 경기도 고양, 양주, 충청북도 진천, 음성, 황해도 연백 등지에 1916년에 84정보, 1918년에 112정보, 1921년에 139정보를 가졌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 김포, 장단, 연천, 이천, 가평, 포천 등지로 넓혀가 1923년에 182정보, 1925년에 247정보, 1926년에 264정보, 1928년에 295정보, 1929년에도 295정보의 농지를 가진 대지주가 되었다. 서울의 공간적 팽창과 부근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철도교통 확대에 따른 수운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농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수남상회는 일제시기에도 농지에서 지대수입과 매매차익 등 엄청난 수입을 얻었다. 그리하여 농지수입이 상품, 부동산, 대부금, 유가증권 등 모든 상점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연도별 비중의 단순평균)은 1916-1919년 37%, 1920-1924년 35%, 1925-1929년 57%로서 급기야 총수입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농지수익률, 즉 농지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은 상품, 대부금, 유가증권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지는 않았다. 이들이 농지, 상품, 대부금, 유가증권을 운용하여 얻은 개략적인 수익률은 1916-1919년에 농지 33%, 상품 58%, 대부금 35%, 유가증권 12%였지만, 1920-1924년에는 농지 21%, 상품 41%, 대부금 13%, 유가증권 14%였고, 1925-1929년에는 농지 18%, 상품

33%, 대부금 2%, 유가증권 15%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농지수익률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조금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태희는 경성융흥과 광장의 주주로서 이 두 회사의 전무, 감사가 되어 배당금 외에 상당액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았다. 따라서 그것까지 합한 유가증권 수익률은 1916-1919년 28%, 1920-1924년 30%, 1925-1929년 29%, 1920-1929년 29%로서 1910년대 말의 농지수익률 33%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1920년대 전반과 후반의 농지수익률 21%, 18% 보다 오히려 높았다(『원장』, 각 연도). 운용자산의 수익률은, 전국평균으로는 농지수익률이 유가증권 수익률을 앞섰지만, 어떤 주식을 소유하고 또 그걸 매개로 그 회사 중역이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가 아닌가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았다. 한말, 일제시기의 지주들이 상공업, 금융업 분야로 자본을 전환하였고 그렇게 농외부문으로 진출했던 지주들이 그 후 단순한 지주로 되돌아간 예가 적었던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수남상회는 1930-1933년 사이의 어느 때부터 상점경영에서 농지경영을 분리하였다. 일제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34년부터 영업소득과 제3종소득(지주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종합 과세한데 따른 대응이었던 것 같은데 이로써 1929년 말에 17만 2,869원이던 대차대조표의 부동산 가액(그중 농지 151,651원)은 1933년 말에 4만 6,751원으로 줄었고 1937년 말에는 4만 4,000원으로 더욱 줄었으며 그나마 농지는 없고 대지와 건물뿐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농지를 모두 매각한 것은 아니었다. 1938년 현재 김태희는 경기도 가평군에만 농지 89정보를 소유 중이었고, 1950년 농지개혁 때는 김태희의 아들 김규정(109정보), 김명희의 아들 김규현(24정보)과 김규순(25정보), 김규현의 아들 김덕용(38정보) 등의 명의로 모두 200정보의 농지를 분배당하였다(홍성찬, 2003).

일제하에는 이들처럼 도시 상공업자로 출발하여 대지주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38년에 경기도농회에서 발표한 서울 대지주 305명중에는 직업이 지물포, 상업, 연탄업, 자동차공장주, 피혁상, 매약업, 정미업, 주조업, 금광업, 제약업, 인쇄업, 實業家 등으로 기재된 사람이 43명이었다(경기도농회, 1938). 그 상당수는 상공업자로서 대지주가 된 경우로 생각되는데 위의 자료에는 김태희는 물론 경기도 여주, 시흥에 110여 정보의 농지를 가졌던 종로 1가의 직물상 김희준도 상인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런 지주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는 김태희처럼 본업인 상공업보다 부동산 특히 농지경영에서 더 큰 수입을 얻은 이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이들은 부르주아지와 대지주의 성격을 한 몸에 지닌 채 둘 사이를 왕래하며 자본을 축적하였던 한국적 자본가, 한국적 대지주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3. 일상생활

서울 종로와 동막에서 수남상회와 동태원을 경영한 김씨가는 정치사회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였다. 원래 이들은 서울 북판인 무교동, 다동, 관철동, 서린동 일대에서 살았는데 정부청사가 가깝고 상가가 밀집하여 고위관료와 상인의 고급주택이 많은 곳이었다. 예컨대 다동에는 1916년 현재 백완혁, 백낙중, 백남신, 백인기, 조진태, 예종석, 조병택, 송병준, 한용식, 김완식, 김한규, 주성근, 유재명, 유신혁, 최찬희, 이근교, 이근명 등 당대의 일급 상인, 기업가, 전직 관료가 살거나 가옥을 가지고 있었다. 수남상회의 김태희는 이웃인 이들과 교분을 나누었고 바로 옆에서 상점을 경영한 주성근(종로 1가 60번지), 김원식(61번지), 김윤석(62번지), 최상현(63번지), 장인완(65번지), 정태환(66번지), 정규환(67번지) 등과 어울렸다. 한말에는 창신사 설립에 참여하여 서울의 유력 포목상들과 유대를 다졌고 일찍부터 종로 壽進床慶契 등 각종 계에도 가입하였다.

그의 점포에는 고객은 물론이고 돈을 꾸거나 돈놀이를 하려는 사람, 신문 잡지의 구독이나 광고를 권하려는 사람, 기부금을 얻으려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출입하였는데 이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재계의 일급인사였던 백완혁, 백주현, 최사영, 조진태, 한상룡, 장두현, 고순재, 김진섭, 민대식, 김한규 등은 물론이고 유문환, 최진, 허헌, 장도 등 변호사들과도 우의를 나누었다. 혼인은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 수단이었다. 김태희는 6대조 이하 선형이 서울 서부지역에 집중되었고 통혼권도 서울에 집중되었다. 첫째 며느리는 종로 교북동에서 태어났고, 둘째 며느리는 서린동 백락승의 딸로서 백윤수 집안과 사돈을 맺었으며, 한남동의 자산가 임병달 집안도 그의 사돈이었다. 동생 김명희의 며느리도 관철동에서 태어났다. 외삼촌도 고모부도 서울에서 살았다. 동막에서 객주업을 한 김상민, 김수희, 김락희 집안과 정보 및 자금

을 수시로 융통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 객주, 미곡상, 정미업자들과도 교류를 넓혔다(홍성찬, 2006).

김태희는 서린동에서 함께 산 서른 살 위의 백완혁(1856년생)과 다동에서 함께 산 열 살 위의 김한규(1877년생)와 각별한 관계였다. 둘 다 대한제국 정부에서 일하다가 실업계로 투신하였는데 지체 높은 양반가문 출신은 아니었다. 이 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선상업은행, 한호농공은행, 한일은행의 중역이 되었고 경성융흥에서도 사장, 전무로 함께 일했다. 김태희는 이 둘이 경성융흥의 사장, 전무였던 1916년 12월에 그 회사 감사역이 되었고 1918년에는 전무가 되었다. 1920년에는 김한규가 사장이던 광장회사의 감사역이 되었다. 광장시장회사인 광장(주)은 대한제국 때 고위직을 지낸 '양반출신' 김중환 등이 창립하여 '평민출신' 홍충현에게 실무를 맡겼는데 그 후 홍충현이 박승직, 김한규, 김용집 등을 중역으로 영입하고 주식까지 매입하여 결국 김한규 등이 경영권을 장악한 회사였다(『매일신보』, 1912. 1.20). 김태희는 그런 경성융흥과 광장의 중역으로서 백완혁, 김한규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런 인연으로 그 후 자연스럽게 정치적 입장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

김태희는 인근상인들과 함께 종로일대의 도로수축, 掘井공사를 돕고 수해의연금을 내거나 서울에 온 만주 봉천, 간도와 러시아 훈춘, 블라디보스톡의 조선동포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關王廟, 南廟의 유지도 도왔다. 종로 상인, 기업가들과 함께 학교 설립과 운영도 지원하였다. 1908년 4월 백인기, 백주현, 유신혁, 조병택, 김기영 등 다동 일대의 실업가들이 자제교육을 목표로 사립공성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어 문법, 회화, 독본, 작문까지 가르쳤는데 김태희는 설립 초부터 이 학교를 도왔다. 종로의 유력인사들이 1909년 3월에 설립한 사립삼흥학교도 도왔다. 그는 서울의 민대식, 박승빈, 고원훈, 장도, 엄주익, 최진 등이 참여한 넓은 의미의 부르주아 민족운동단체였던 계명구락부를 지원하였다. 1923년에는 대표적인 부르주아 민족운동단체였던 조선물산장려회의 회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백완혁, 조진태, 한상룡, 민대식, 김한규, 백락원, 장두현, 박승직 같은 거물 실업인과 김윤수, 변상호, 허택, 김종순, 손종수, 김희준, 김윤면, 박승기, 김영준, 이세현, 조종국, 김순열, 조한용 같은 유력 포목상도 대거 참여하였다. 그는 백완혁, 김한규를 따라서 총독정치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그들이 주도한 조선

물산공진회, 경성신사를 후원하였고, 친일단체였던 대정친목회와 경성구호회, 소도회에 가입하였으며 총독부, 경기도, 종로경찰서의 임직원 송영에도 참여하였다(홍성찬, 2006).

김태희는 김한규와의 인연으로 1918년에 경성상업회의소 의원에도 선임되었다. 정원이 32명에 불과하고 그중 한국인 자리는 9석뿐이었는데 앞서 경성유흥 대표 자격으로 의원이 되었던 김한규가 의원직을 사임하자 그의 잔여임기를 채울 의원에 선임된 것이다. 이로써 서른을 갓 넘긴 김태희는 백완혁, 조진태, 한상룡, 호근호, 송택수, 홍은주, 김연연과 함께 경성상업회의소 의원으로서 서울의 한국인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1919년 말에 서울의 재계 인사들이 한국유일의 유가증권거래시장인 경성주식현물취인시장(주) 설립을 추진하자 그 창립비도 냈다. 한때 유가증권거래업을 겸영하여 이 방면에 관심이 있었고 경성유흥에서 증권전문가였던 김응룡과 증역으로 함께 일했던 터라서 자연스레 관심을 보인 것 같다.

동막의 김수희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서울의 미곡상, 정미업자들과 어울렸고 경성미곡상조합에서 함께 활동한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장 다카노 쇼조(高野省三)의 환송회에 참가했으며 1921년 7월에는 조병택, 김연수, 장두희 등과 함께 조선인산업대회의 발기인에 위촉되기도 하였다. 한일, 한성은행 사람들을 자주 접대하였으며 인근 상인이나 거래처의 혼례, 상례, 제례, 생신, 수연도 열심히 챙겼다. 권력기관과의 유대도 다졌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조선총독부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정무총감의 송별회비를 냈고 재향군인회 설립도 도왔다. 청년회 등 지역 유지 모임에 나갔고, 식산흥업계, 永興契, 里中契 등 각종 계에 참여하여 인근 상인들과 신뢰를 쌓았으며 그곳 火堂과 舊堂에 치성을 드렸다. 1923년 9월에는 이성환, 고규영, 임공순, 장두희 등 동막 유지 17명과 함께 풍기단속과 산업발전을 목표로 '동막교풍회'를 창립하기도 하였다(홍성찬, 2013).

김씨가는 상업경영에 관해서는 근대적 기법을 적극 도입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 의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는 문명개화사상의 확산으로 미신타파의 분위기가 늘고 기독교로 개종한 상인 기업가도 많았다. 그중에는 종로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상운(商運)을 빌기 위해 관왕묘에서 행해온 각종 의례조차 우상숭배라며 부정한 이도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장사가 잘 되길 빌며 부처님,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고 점복을 중시

하였다. 1908년에는 불탄 점포를 재건한 후 고사를 드렸고 1910년에는 병중인 부친 김상태의 쾌유를 비는 치성을 올렸으며 일찍부터 남산 와룡당에 다녔다. 동막의 김상민 집안을 포함한 집안전체가 청암사라는 절에 다녔다(지금도 마찬가지이다).(홍성찬, 2006).

이들은 관왕묘에 출입하며 그 운영을 도왔다. 원래 종로 상인들은 재신이자 무신인 관우를 모신 종로 보신각 옆과 다동의 관왕묘와 남산 아래의 남묘에 치성을 드렸다. 동대문, 남대문 상인들은 동묘, 남묘와 장충동의 관왕묘에 치성을 올렸다. 관왕묘는 서울사람들이 '수백년래 경성시민의 수호신'으로 생각해온 곳으로서 일반시민은 가내의 안태와 자녀의 행복을, 사대부는 국가의 태평을, 상민(商民)은 상운의 융성을 빈 시민신앙의 중심지였다(『매일신보』, 1916.7.29). 치성을 드리기는 동막, 마포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위관리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김종한, 우경선과 굴지의 자산가였던 김돈희, 최사영, 그 외 마포의 객주와 쌀전(米廩) 상인 등이 1904년에 지금의 불교방송국 자리에 靈堂을 건립하고 운영을 후원한 것이 그 예다. 이들은 그곳 영당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등의 만수를 비는 현판도 걸었는데 종로 백목전 상인들이 동묘에 '聖壽萬年'이라고 쓴 석대를 진상한 것과 같은 예였다.

김씨가는 제례, 상례, 혼례, 관례 등 각종 유교의례를 철저히 거행하였다. 수준도 전통 양반가문과 같았다(지승중 외, 2000). 공용금을 만들어 기제사, 삭망, 한식, 단오, 추석, 대상, 담제, 길제를 일일이 행사하였다. 상례에도 철저히 유교 불교와 무속의식을 섞어 치렀는데 절에서 정토선행재와 49재, 백재를 지냈고 지노귀굿(씻김굿)을 하였다. 혼례도 마찬가지였다. 친족유대를 위해서 효의계를 운영했고 친가는 물론 처가, 외가의 생일, 회갑, 수연, 출산도 열심히 챙겼다. 아이들을 신식학교에 보내고 신식학교를 지원하였지만 막상 자녀들의 한문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에 다닐 생각은 더욱 없었다. 보통의 종로상인들은 이들처럼 전통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서 장사를 배우고 사람을 사귀고 자녀를 교육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홍성찬, 2006).

IV.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 김씨가는 늦어도 19세기 후반에 서울 종로와 한강변 동막에서 장사에 나섰다. 그리하여 종로에서 시전상인의 오랜 상업전통 속에서 수남상회라는 포목점을 운영한 김상태 가게는 1910년대 초에 서양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가게와 기업을 분리하고, 자본금 불변의 원칙을 지키는 등 이미 근대기업의 특징을 두루 갖추었다. 그 후 이들은 강점 후 한국의 무역파트너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급속히 교체되는 가운데 1926년 말부터 일본에서 일본산 견직물을 직수입하여 각지에 판매하는 무역업에 진출하였고, 1935년에는 그 상점을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종로 1가의 개인상점 주인에서 무역업 전문의 주식회사 사장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인근의 견직물 수입상들과 함께 경성견포상동맹회(1929)를 만들어 회장이 되었고 그 대표로서 조선직물조합연합회에도 참여하였다. 일본을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 유통네트워크의 형성에 깊숙이 참여하고 또 편입되어 간 것이다.

한편 동막에서 경강상인의 오랜 상업전통 속에서 동태원이라는 객주업체를 운영한 김상민 가게는 20세기 초에 객주업 외에 운송업, 창고업, 보험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갔고 1910년대 초에는 동막에서 동일정미소라는 기계제 정미공장을 설립하여 정미자본가, 공업자본가로 변신하였다. 이들은 서울의 미곡무역업자들과 함께 경성미곡상조합을 만들고 그걸 모체로 京城正米取引市場을 개설하는데도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미쓰이물산, 이토추합명, 스즈키상점 같은 일본 재벌계 무역회사와 서울의 일본인, 한국인 미곡상, 정미업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동일정미소의 김수희는 그 조합의 부조합장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상업적, 도시적 기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울의 미곡상과 미곡객주가 일본제국의 유통네트워크 형성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편입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수남상회와 동태원은 1904, 1905년부터 경기, 황해, 충청, 전라도의 농지를 집중 매입하였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와 대지주의 성격을 한 몸에 지닌 채 둘 사이를 왕래하며 자본을 축적한 한국적 자본가, 한국적 대지주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1920년대 중반이후 행로가 같았다. 종로의 김상태 가게는 일본산 견직물을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상으

로 변신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동막의 김상민 가게는 서울의 상권이 한강에서 서울역 중심으로 옮겨가고 일본에서 미쓰이물산, 스즈키상점, 이토추합명 같은 재벌계 무역상사와 초대형 정미자본이 속속 진출한 가운데 결국 경쟁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한말 일제하의 김씨는 전통과 근대, 반일과 친일, 어느 편에도 두드러지게 나서지 않았다. 수구, 개혁, 친일, 반일인사를 모두 만났고 친일지, 민족지로 불린 신문잡지를 모두 구독하고 광고도 양쪽에 모두 실었다. 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와 광의의 민족운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친일단체에도 가입하였다. 친일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일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노선과는 애초부터 무관하였다. 서울에서 무반계 집안으로 살아온 이들은 일찍부터 일본 상인들과 사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박승직이나 서울의 명문 양반 출신인 김종한 등과 거리가 있었고 서북출신인 박홍식이나 호남출신의 김성수와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서울의 무반이나 중인 또는 평민출신으로서 재계의 대표적 인사로 성장한 백완혁, 김한규나 여타 종로 상인들과 긴밀히 교류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전통적, 유교적 문화와 의식 속에서 장사를 배우고 사람을 사귀고 자녀를 교육하였다.

수남상회의 김태희는 1945년 가을 서울의 재계 인사들이 이승만 등 우익세력을 후원할 목적으로 대한경제보국회를 조직하자 그 위원이 되었다. 1945년 10월에는 미군정하에서 조선식산은행 산하 농업회사였던 해동홍업(구 불이홍업)의 주주로서 취체역(1945.10-1947.9)이 되었다(홍성찬, 2007). 1946년 4월에는 남한최대의 상공인단체였던 조선상공회의소의 설립발기인이 되었다. 해방 후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려한 민족·자본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한 사회주의 노선이 각축한 가운데 전자의 입장에서 남한체제 수립의 일익을 맡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은 19세기 말에 다수 존재하였던 이런 급의 서울 상인들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을 거치며 근대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 진화/몰락하여 간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인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자본주의 진영의 국가건설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갔던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京畿道農會 (1938), 『地主名簿』, 경기도농회.
- 고승제 (1970), 『한국금융사연구』, 일조각.
- 김동운 (2001),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해안.
- 김용섭 (2004), 『신정 증보판 한국근대농업사연구 II』, 지식산업사.
- _____ (2000), 『증보판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 대한상공회의소 (1949), 『대한상공회의소삼년사』, 대한상공회의소.
- 류승렬 (1996), 『한말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주』, 서울대박사논문.
- 마 민 (2006), 『중국근대의 신상』, 신태갑, 후걸 옮김, 신서원.
- 박 현 (2004), 『한말 일제하 한일은행의 설립과 경영』, 『동방학지』, 1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87-267.
- 심승구 (2002), 『조선후기 武科의 운영 실패와 기능』, 『朝鮮時代史學報』, 23, 조선시대사학회, 147-204.
- 윤석범 외 (2005),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 오미일 (2002),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 오진석 (2006), 『한국근대 電力産業의 발전과 京城電氣(株)』, 연세대학교 경제학박사논문.
- 이경엽 (1998), 『목포의 상업민속에 대한 현지연구』, 『역사민속학』, 7, 한국역사민속학회, 173-193.
- 이병천 (1985),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투와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박사논문.
- 이승렬 (2007), 『제국과 상인』, 역사비평사.
- 一記者 (1930), 『一個 換布商으로서 株式會社 社長이 된 商界의 巨星 朴承稷氏』, 『朝鮮物産獎勵會報』, 1-9.
- 전우용 (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병준 (1999), 『대한경제보국회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 33, 256-295.
- 정혜은 (1995), 『조선후기 武科의 直赴殿試』, 『軍史』, 31, 94-132.
-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 _____ (1977),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 대왕사.
- 주익중 (2008), 『대군의 척후』, 푸른역사.
- 지승중 외 (2000), 『근대사회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
- 한우근 (1970),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조각.
- 홍성찬 (1981),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한국사연구』, 33, 한국사연구회, 67-115.

- _____ (1992), 『한국근대 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 _____ (2001), 『해방 이전의 한국경제』, 윤석범 편, 『한국경제론강의』, 세경사.
- _____ (2002), 『한말 일제하의 서울 鍾路商人 연구』, 『東方學志』, 116, 217-267.
- _____ (2003), 『한말 일제하의 地主制 연구』, 『동방학지』, 122, 253-292.
- _____ (2006), 『한말 일제초 서울 종로상인의 日常 활동』, 『동방학지』, 133, 115-172.
- _____ (2007a), 『한말 서울 東幕의 米穀客主 연구』, 『經濟史學』, 42, 경제사학회, 3-31.
- _____ (2007), 『해방 후 '귀속 국내 법인'의 운영과 청산』, 『동방학지』, 140, 269-306.
- _____ (2009), 『일제하 한일 무역네트워크 형성의 한 양상』, 『동방학지』, 145, 141-187.
- _____ (2009), 『한말 서울 東幕 객주의 米穀 반입과 재래 船運業』, 『韓國史研究』, 145, 한국사연구회, 115-150.
- _____ (2012), 『한말 서울 東幕 객주의 미곡 거래와 荷主들』, 『東方學志』, 159, 327-366.
- _____ (2013), 『한말 서울 東幕 객주의 정미업 진출과 경영』, 『經濟史學』, 55, 213-247.
- 宮本又郎 (1990), 『産業化と會社制度の發展』, 西川俊作·阿部武司 編, 『産業化の時代 上』, 日本經濟史4, 岩波書店.
- 金明洙 (2010), 『近代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人企業家·朝鮮財界 : 韓相龍の企業活動と朝鮮實業俱樂部を中心に』, 慶應義塾大學 經濟學博士論文.
- 竹內錄之助 (1915), 『朝鮮商業總覽』, 內外商品新報社, 京城.
- Coase, Ronald H. (198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ckert, Carter J. (1991), *Offspring of Empir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 Hwang, Kyung Moon (2004), *Beyond Birth : Social Status in the Emergence of Modern Korea*,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243,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Merchants between Empires: The Seoul Kims and the Internal Origins of Korean Bourgeoisie

Sung-chan Hong*

Abstract

Businesses with more than a century of history are rare in Korea. Known examples include only a handful of banks and large conglomerates that have survived since the late 19th or early 20th century. Consequently there is a noticeable lack of the literature on Korean business history. Given the backdrop,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the history of Kim family that engaged in business for over four generation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 Jongno, Seoul and Dongmak, at the coast of the Han River. We intend to show that the bourgeois class of Korea was not a sudden phenomenon that took p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that the class evolved and matured continuously throughout Joseon Dynasty, the Great Korea Empire and the colonial period of the Japanese Empire. We demonstrate the internal origins and continuous nature of Korean capitalism and bourgeois class by examining the history of Kim family.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Merchants in Jongno, Seoul, Grain brokers, Sunam drapery shop, Dongil Rice Mill, Sang-tae Gim, Sang-min Gim, Tae-hi Gim, Suhi Gim, Rakhi Gim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e-mail: schong@yonsei.ac.kr